**막0322 Note**

**◆도우미 : 바알, 바알브올, 바알세불** Baal-zebub

◇어원 추적

헬라어 : 바알(기원은 히브리어 바알),

우상의 상징으로 사용된 페니키아의 신(神)

히브리어 : 바알 제부브

바알(페니키아의 신 바알,주인,남편,소유자)과 제부브(파리)에서 유래,

파리의 바알, 블레셋 땅 에그론 사람들의 특별한 신, 바알세붑

왕하0102. 그리고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던 그의 윗방(알리야: 높은 어떤 것,계단,2층방,하늘,상승,방,윗방,올라감,다락,객실)에서 난간[세바카:그물망,(사냥하는데 쓰는)덫,(건축에서)난간,그물모양의 장식,바둑판무뉘,격자,화환,동그란 망]을 통해 아래로 떨어져, 병들게 되니라(할라:지워지다,닳아빠지다,쇠약하다,병들다,아프게 하다,병든,연약함,고통을 주다,몹시 아픈,약하여지다,상처입다), 이에 그가 사자들을 보내면서, 그들에게 말하니라, 가라, 내가 이 질병에서 회복될지 어떨지 에그론(에그론:근절,팔레스틴의 한 지명 에그론,에그론)의 신(神) 바알세붑[바알 제부브:바알(페니키아의 신 바알,주인,남편,소유자)과 제부브(파리)에서 유래,파리의 바알,에그론 사람들의 특별한 신,바알세붑]에게 물으라,

**◇ 인터넷 자료 1**.

**바알**

이 낱말의 뜻은 '주인' 또는 '임자'이다.

시간이 흐르면서 이 낱말이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마침내는 신들의 이름이 되었다. 가나안 성읍의 신들이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.

어떤 한 지역의 신으로 이름난 경우로는 세겜의 바알브릿('언약의 주', 삿8:33; 9:4), 브올의 바알(바알브올, 민25:3-5), 에그론의 바알세붑('파리의 바알', 왕하1:2. '바알세불\*'), 시돈의 바알(왕상16:31)을 들 수 있다.

이스라엘에서는 이 신들의 이름이 점점 더 '우상'이란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데, 이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특히 가나안의 여러 종교의식과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.

사람들이 바알을 하늘 또는 기후의 신으로 이해했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.

바알이 아세라\* 또는 아스다롯\*과 결합됨으로써(왕상11:5) 바알이 다산 종교의식\*에

관련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.

관련용어 : 다산 종교(의식), 바알세불, 아세라, 아스다롯

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풍요의 신 또는 그의 남성 형상.

그의 짝인 여성신은 아세라다. "바알"의 뜻은 "주인".

**바알브올[ Baal-Peor ]**

‘브올에서 섬기는 바알’, ‘열리는 바알’이란 뜻.

모압의 우상신으로, 생식(生殖)과 출산을 관장하던 프리아푸스 신을 가리킨다.

바알브올 숭배에서는 신전 여사제와의 음란한 제의 의식이 수반되었다.

모압의 국가신 ‘그모스’와 동일시되기도 한다(신 4:3; 호 9:9).

**바알세불(또는 바알세붑)**

본디는 '바알세붑'('높은 거처의 주'라는 뜻인 듯하다. '바알\*'을 보라)인데

블레셋 사람들의 신(왕하1:2)이고,

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'파리의 주'라는 뜻으로 풀이했다.

이를 유대교에서는 바알세불('오물의 신')로 고쳐서 우두머리 마귀를 가리키는 말로 썼다(마10:25; 12:24).

두란노 서원 자료

바알세불은 구약에 나오는 에그론의 신 즉 팔레스타인의 토착신인 바알세붑('파리들의 주'-왕하1;2-3)과 동일한 신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

신약에서는 사탄이나 귀신들의 왕과 동일시 되고 있다.

예수님 당시에는 이 단어는 '그 집의 주인'으로도 이해되었던 것 같다

**◇ 인터넷 자료 2.**

**바알**

본래 가나안 일대에서 숭배받던 신으로, 이름은 바알(Baal)이다.

폭풍과 전쟁, 풍요를 담당하고 있으며,

만신전(모든 신을 모신 신전)에서 으뜸인 존재였다.

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서 곳곳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예언자 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한 후 승리해 그들을 도륙했다는 얘기가 유명하다.

바알은 사실 '높은 곳의 주인(The Master of Highground)'인 '바알-제불'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으나, 그 호칭이 위대한 왕 '솔로몬'의 칭호와 겹치는 바람에 히브리어로 '파리(Fly)'를 뜻하는 'Zbob(제봅)'을 붙여 파리들의 주인(The master of flies)'인 '바알-제붑'으로 불렸다.

아람어로 바알사멘(하늘의 주재) 혹은 히브리어로 바알-세바임(제물들의 왕)으로 불리던 바알은, 유대인들이 발음이 비슷한 바알-세불, 즉 파리들의 주인(The Master of Fly)으로 불렸다. 당시에 그렇게 붙여진 이유가 "니 제물에 붙은 파리조차도 못 쫒아내냐"며 디스하기 위해서라고.

나중에는 아예 바알-세불(똥의 신)이라고 불리기까지 한다(...). 이러한 연유로 거대한 파리로 묘사되곤 한다. 심지어는 모멸의 호칭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었다고.

**◇ 인터넷 자료 3.**

성경의 바알(Baal)

구약성경에서 이것은 페니키아 사람들 특히 두로 사람들의 우상을 가리킨다.

바알 숭배는 아스다롯 숭배와 함께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엄숙한 의식과 함께 도입되었다(삿6:25-32; 왕하10:18, 28). 아스다롯 참조.

바알의 복수인 바알들(Baalim)은 바알의 형상들을 의미했다(삿2:11; 10:10).

엣바알, 여룹바알, 한니발 같은 이름들을 통해 바알 숭배가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지역에 널리 퍼졌음을 알 수 있다.

한편 바빌론 사람들은 이것을 벨이라 불렀다(사46:1; 렘50:2; 51:44).

바빌론의 바알 숭배는 유명한 바벨탑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탑의 꼭대기 방은 별을 관측하고 그 기록들을 담아 둔 곳이었다.

동방의 점성술에서 바알 숭배는 곧 천체 숭배를 뜻하였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알이 태양신이라고 생각했다.

그러나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의 신 주피터라 불렀다. 그래서 주피터는 비너스와 함께 사람의 행운을 주관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그 관계가 바알과 아스다롯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.

바알의 형상들과 전들은 대개 높은 곳에 있었다.

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의 두 뜰에 하늘의 군대 특히 아스다롯을 위한 제단들을 세웠다(왕하21:5-7).

예레미야는 지붕에서 바알에게 경배를 드린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주었으며(렘32:29)

요시야는 아하스가 자기의 궁전의 난간에 세운 이런 제단들을 파괴시켰다(왕하23:12).

또 고대 사람들은 종종 인신 제물을 바알에게 드리기도 했다.

예레미야는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 헌물로 드린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책망하였다(렘19:5). 몰렉 참조.